



2004년 이후 벌꿀의 관세 전망과 대책

한국양봉축산업협동조합장 조상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하여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상을 끝내고 WTO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농산물 일 수록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게는 약 600% 과세화가 이루어진 품목이 있는가 하면 자국 내에서 생산된 평균 생산량의 3% 정도를 20%의 낮은 관세를 내고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10년간 수입하도록 협상한 농산물도 있는데 벌꿀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매년 8% 정도씩 증가하여 10년간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도 매년 3% 정도씩 낮아지도록 되어 있어 마지막 2004년도에 243%로 관세가 낮아지고 의무 수입량도 처음 250톤에서 2004년에는 420톤이 들어오게 되어있다. 쇠고기가 내년부터 20%의 관세로 완전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벌꿀이 협상과정에서 아쉽지만 어느 정도 높은 관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가격과 외국 가격 차이가 많은데 주원인이 있고 외국에서 벌꿀 개방 압력을 제시한 나라가 적었고 농림부의 국제 협력 국장을 비롯한 그 당시 협상 팀으로 나갔던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협상 팀에게 최소한 500% 관세화까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양봉 산업은 이제 끝장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그 절반 정도인 270%로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그 당시에 나갔던 협상 팀으로부터 500% 이상은 관철시키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지만 그래도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었는데 이제 앞으로 2004년 이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하겠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애틀 라운드라고 하여 협상이 있었는데 세계 각국의 협상 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격렬한 시위를 하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내년에 WTO 각료 회의가 개최되고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가 시작되면 농산물 협상이 빨라질 것이고 협상 시한은 없지만 2002년까지 협상은 끝마치리라 생각되며 대다수 양봉인들은 2004년 이후는 관세 장벽이 전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협상의 여하에 따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며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보다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많이 완화되리라 생각된다.

우리 양봉 업계로 보면 벌꿀 한가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공산품과 농산물 등이 각 나라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높은 관세 장벽이 있던 농산물을 각국에서 다시 보호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세는 많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보호되리라 생각된다. 협상을 좀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 가격과 국제 수출 가격과의 차이를 벌여서 협상 과정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으므로 벌꿀도 협상 전까지는 꿀 가격을 일시적으로 약간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꿀 가격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 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꿀이 부족해야 꿀 가격이 오르는 것이 되므로 이도 양봉인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사양꿀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 국내 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2004년이면 양봉업계는 끝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하겠다.

요즈음 양봉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는 구제역 파동 이후 수출이 중단되다보니 남은 물량만큼은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지키는 길인데 양봉인들 스스로가 나는 감축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감축하기를 바라다보니 전 양봉인들이 다 큰 타격을 입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도 사양꿀 생산업자가 우리 양봉업계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지난해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 60만원대로 다시 하락하여 외국 꿀 가격과 차이가 좁아지다 보니 관세를 물고서 꿀을 들여오기는 어렵겠지만 가격 차이가 얼마 안되면 그 업계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알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다보면 차기 협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따지고 들 때 결코 대항할 무기가 없게 되어 불리해 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양봉여건으로 볼 때 관세 장벽이 없어지면 현재의 여건을 바꾸지 않으면 생산자는 어렵기 때문에 필자가 밀원을 심으라고 강조하는 것도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앞으로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고급화로 가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게 되는데 고품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실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관세 장벽이 없어지는 동시에 양봉업계는 몰락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관세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94년부터 10년간의 보호 기간동안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그이후의 기간동안 우리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밀원식재와 고급 화하는 길밖에 없으며 벌꿀의 품질 향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어느 물건이고 시장의 구석에서는 품질저하 제품이 일부 거래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의 벌꿀 시장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할 것 없이 그야말로 고급화 된 제품이 꼭 팔려야 할 곳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순수한 고품질로 담아내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판매업자도 양봉인으로 출발하여 판매업자로 대부분 변신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라도 새롭게 변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제 많은 양봉인들이 벌꿀 시장에 대하여 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해 있어 폭발직전에 있지 않나 생각되며 토종꿀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에도 꿀에 대한 많은 정보가 실리다보니 이제 어떠한 글이 어디에서 올려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나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올해 월동 봉군 수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늘어나 사육군 수가 114만 군으로 약 20%정도 늘어나 있는 입장이다. 내년 아카시아 꿀이 많이 생산된다면 지금 같은 시장 원리 속에서는 다 소화시킬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이를 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양봉 조합에서는 누구나 상품화된 제품을 검사 의뢰해 올 경우 탄소동위원소 검사를 무료로 해주어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알려주려고 한다.

2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불량 벌꿀 고발 창구를 만들어 포상도 해왔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소비자의 힘을 빌려 정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여 소비자에게 알 기회를 주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시장은 스스로 정화되어 가리라 생각되며 판매업자가 팔아줄 기회가 없지면 사양꿀은 스스로 생산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한가지는 국영무역으로 들어오는 벌꿀은 우리 스스로 팔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올해 수입권 공매로 80%가 넘어가 있는 입장인데 현재 99년도에 들어온 꿀이 약 500여 드럼 남아 있어 농림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

수입권 공매로 넘어가 있는 것보다 국영 무역으로 그대로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차기 협상에서도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양봉업계

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영무역으로 협상을 해줬는데 우리 스스로 외면한다면 그러한 업계를 위하여 누가 다음 협상에서 유리하게 해주겠는가?

국영무역으로 들어온 꿀이 안 팔리는 이유는 사양 꿀이 싸고 생산량이 많다보니 안 팔리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나는 다량 생산하면서 남은 생산하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르니 의무 수입량이 안 팔려 결국 차기 협상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도 사양꿀 생산업자와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저야할 몫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은 이국에서 1년에 약 3만 톤씩 수입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내 수요량을 순수한 꿀로 팔 때는 턱없이 모자라는 입장 이므로 양봉인들이 좀 더 규모 화하여 생산량을 늘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수입꿀로 대처 할 수밖에 없게된다. 앞으로 2002년까지 협상하는 담당자에게 저를 비롯한 조합장과 협회장이 나서서 우리 업계의 현실을 자세히 알려서 협상에 유리하게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전 양봉인들이 한마음이 될 때 더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된다. 소비자 들이 외국꿀을 선호하지 않도록 하면 아무리 개방이 되어도 문제가 될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처럼 외국 여행 갔다오는 사람한테 가이드들이 꿀을 사가도록 권해서 많은 꿀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도 국내꿀의 불신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외국양봉 업계에선 한국시장을 진출하려고 할 것이고 차기 협상에서도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나라가 많아지면 협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여행객이 꿀을 사오지 못하도록 국내꿀의 품질을 올려야 하겠으며 여러나라에 우리 소비시장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것도 수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비롯한 몇 몇 사람들이 자제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은 중국이 세계시장에 벌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내년쯤에 WTO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나라 벌꿀 시장 개방 요구 및 벌꿀 수출의 제일 강자로 부상하리라 생각된다.

국내에서는 육류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IMF 이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도 우리 스스로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한데에 원인이 있는데 양봉인들도 앞으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화 개방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양봉인들은 알아야 하겠으며 2004년 이후에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나 일정기간 관세가 유지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밀원 심기 운동과 품질 고급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다.